

HEREN

트루 프리미엄 멤버십 매거진 HEREN IS LOVE

JANUARY 2015

100th ISSUE SPECIAL

100인이 말하는 내 인생의 물건 100

실비아 다미아니의 밀라노 집

Beauty, Legend vs. Legend





2



3

국제갤러리 2014.12.16~2015.1.25



6



1



7

그림 풍경

이광호 작가는 인적 없는 제주도 곳자왓 숲 속에서 발견한 낮과 밤의 풍경을 화폭에 담았다. 자세히 들여다보면 물감이 뭉개지고 벗겨져 만들어진 추상적인 질감이지만 한 발짝 물러나서 보면 마치 사진인 양 느껴지는 극사실화로, 숲 속에 들어가 나무에 둘러싸인 듯 공감각적인 작품으로 탄생했다. 그렇게 만들어진 신작 21점을 이번 전시를 통해 소개한다. **PE** editor 이영신 photographer 인성욱

1 곳자왓의 낮과 밤의 풍경을 각각 1층과 2층에 나누어 전시했다. 어두운 벽과 낮은 조도로 밤의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었던 2층 전시장.
2 이광호 작가가 선인장 시리즈에 이어 국제갤러리에서 선보이는 두 번째 개인전이다. **3, 4** 작품들은 실제 숲 안의 모습을 포착해 숲을 거닐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켰다. **5** 사진작가 구본창도 오프닝 현장을 찾았다. **6** 작품 '무제 6929'가 실린 초대장. **7** 전시는 국제 갤러리 1관에서 진행되었다. **8** 갤러리아 포레에 위치한 갤러리 아틀리에에 아키 김은경 디렉터. **9** 애널리 주다 갤러리 디렉터 데이비드 주다(David Juda)도 이광호 작가의 작품을 보기 위해 갤러리를 방문했다. **10** 이광호 작가. 그간 극사실화를 추구해왔다면 이번 전시에서는 사실주의에 추상적인 표현을 더한 작품들 위주로 선보였다. **11** 작가는 쌓인 눈이 남아 있는 덩굴, 새벽녘 빛이 비쳐 들어오는 순간 등 숲이 가진 다양한 이미지에 매력을 느꼈다고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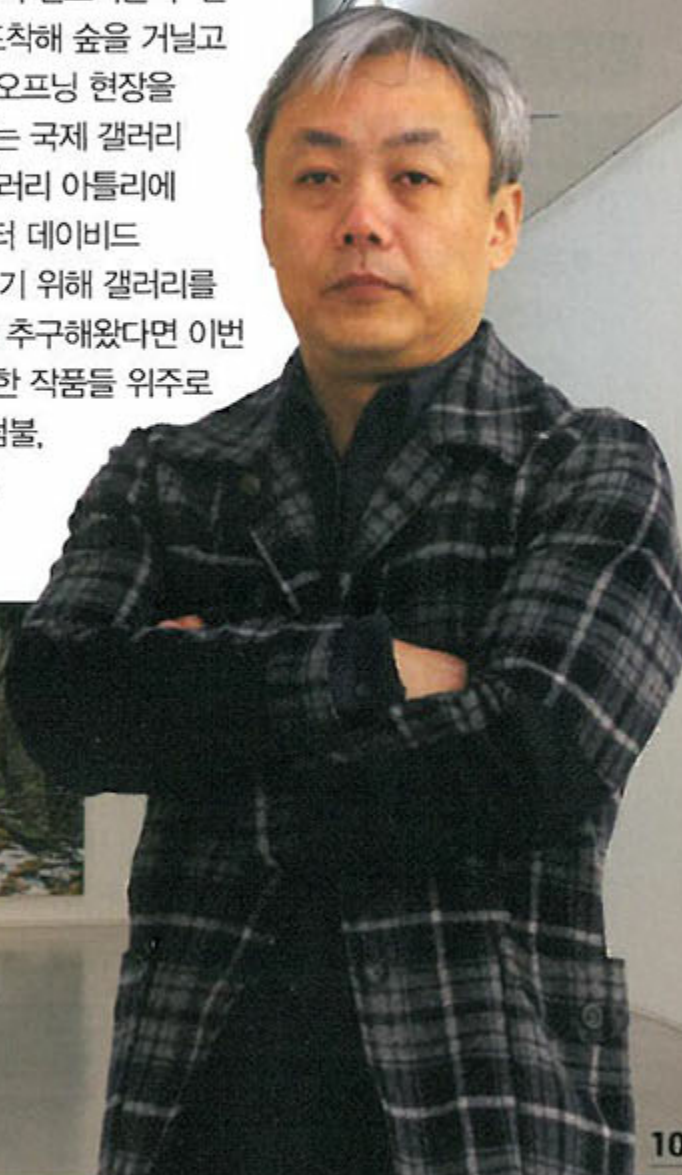
8

9



4

5



10



11